#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연구책임자 : 김 홍 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연구요약

외국인이 자기 스스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진단하고, 이를 분석한 후 오답 클리닉을 통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법은 '외워야 하는 것' '어려운 것' 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학습자들이 매우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문법 교수법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문법 토론식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문법 토론 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토론을 실행하고 가료를 분석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녹화한 자료도 전사하여 그 자료를 내용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시 보완하여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 학습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고학력 이주민 여성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연수 과정을 거치고 연수 후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이중 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채용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하에 경인교대에서 국비 장학생의 형식으로 선발한 40 명의 이주민 여성들은 전원 대학 졸업의 학력을 소유한 고학력자이다. 본 연구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문법 교육을 담당하였으며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39명이 경기도 소재 초중등 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채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차 례

I.	서	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가. 연구의 배경1
		나. 연구의 목적2
	2.	연구의 방법3
		가.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3
		나. 델파이 방법
		다. 조사 연구4
		라. 웹블렌디드 러닝4
		마. 개별 심층 면담5
II	. •	러닝 진단 처방 시스템6
	1.	한국어 학습의 진단 처방 시스템 모형6
	2.	진단 처방 시스템 적용의 실제7
		가. 진단7
		가. 진단7 나. 분석12
		나. 분석12
	3.	다. 천방 및 개인별 맞춤 학습 ···································
	3.	나. 분석       12         다. 처방 및 개인별 맞춤 학습       12         라. 컨설팅       17

II	[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문법 교수법 27	7
	1.	온라인 토론 학습 모형	27
		가. 토론의 절차와 방법	28
		나. 토론 학습 모형의 변형	35
	2.	문법 토론의 실제와 분석	37
		가. 토론 담화 분석의 틀 설정	41
		나. 토론 담화 분석	48
	3.	문법 토론의 교육적 효과	61
IV	. 2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사 양성 사업 확대71	-
	1.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71
	2.	사업의 목적	73
	3.	사업의 성과	75
V	٠ ٩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70	6
	1.	연구 결과의 요약	76
		가. 이러닝 진단 처방 시스템 개발	76
		나. 블랜디드 러닝 토론을 활용한 문법 교수법 개발	76
		다.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사 양성 사업 확대	77
	2.	정책 제언	77
		참고문헌	<del>7</del> 9

# 표 차 례

<표 II-1> 관용어의 부정 표현 양상 ·······25
<표 III-1> 토론문 분석 준거 ··················45
<표 III-2> 토론문 분석 준거 구체화 ·······45
<표 III-3> 평가문 판단 준거 ··················47
<표 III-4> 토론문 분석 결과(1) ·······49
<표 III-5> 토론문 분석 결과(2) ······50
<표 III-6> 토론문 분석 결과(3) ·······51
<표 III-7> 토론문 분석 결과(4) ·······51
<표 III-8> 평가문 분석 결과(1) ·······52
<표 III-9> 평가문 분석 결과(2) ·······53
<표 III-10> 평가문 분석 결과(3) ·······54
<표 III-11> 평가문 분석 결과(4) ·······56
<표 III-12> 평가문 분석 결과(5) ·······57
<표 III-13> 평가문 분석 결과(6) ·······58
<표 III-14> 평가문 분석 결과(7) ·······58
<표 III-15> 국어 교육 과정의 변천 ···································

# 그 림 차 례

[그림	II-1] 진단·처방 학습관리 시스템	7
[그림	II-2] 일대일 컨설팅 흐름도	18
[그림	III-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토론학습 모형2	27
[그림	III-2] 문법토론식 웹블렌디드 러닝의 설계	36
[그림	III-3] 웹블렌디드 e-러닝 교수설계	37
[그림	III-4] 교차토론 진행 양상	38
[그림	III-5] H사범대학 HI-POTAL 사이트	<b>1</b> 0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법무부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122만 명을 넘고 결혼 이민자의 수도 13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2010년 현재 전국 초· 중고에 재학 중인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는 3만 여명이며,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수는 6만 여명에 이른다. 또 2000년대 들어국제 결혼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문화에 익숙해져 있 던 우리 사회에 외국인의 수용에 대한 정책 문제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 제로 부여하였다. 동화정책부터 문화상호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 방 향이 존재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의 문제이다. 다문화 구성 원들이 문화적 차별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으로 전략할 경우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의 방향과 별개로 이들이 사회 적응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원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요구 조사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급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이 85%정도를 차지하고 중학생이 12%, 고등학생이 3%정도로 아직 청소년기보다는 아동의 분포가 높다.(2007년 교육인적 자원부 통계) 청소년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둘러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11개 부처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중복과 충돌에서 오는 예산 낭비 등 업무의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지원 정책도 일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보완할 점이 많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문화 교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의 배경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다문화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한국어 교육에서 드러난 한계

점을 심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연구 결과를 정책 에 반영시키는 데에 있다. 또한 앞으로 한국어 교육계가 수행해야 할 구체 적 과제에 대한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의 완성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 가.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내용분석법이란 의사소통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간략한 유형으로 기술하는 과학적 방법을 말한다.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내용이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인 의도나 그것으로 인한 잠재적인 반응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의사소통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객관성의 요소로서 다른 분석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분석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체계성의 요소로서 의사소통의 모든 내용들을 그와 관련된 모든 범주를 분석한다는 것과 과학적인 문제나 가설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이 계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양화의 요소로서 내용에 있어서 분석의 범주가 나타나는 정도, 즉 강조나 축소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박도순, 2008:289-290)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웹상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토론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양화시킴으로써 질적 내용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나. 델파이 방법

델파이방법(Delphi-technique)은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는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 1948년 경마의 결과예측을 위하여 처음 실시된 이후에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의해 많은 발전을 보았는데, 오늘날 사용되는 방법은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델파이 실습(Delphi exercise)'으로서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형태와 절차를 따르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둘째는 '델파이 협의(Delphi conference)'로서 질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질문내용에 응답하게 되는 것으로 회수 및 결과 분석을 컴퓨터로 일괄처리 하는 방식이다.(박도순 2008:227-229) 본고에서는 첫 번째 방식을 준용한다.

### 다. 조사 연구

'사범대학생의 문법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설문지'를 사범대학생 4학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항목들을 추가·삭제·교체하여 본 설문지를 제작한다. 본 설문지가 제작된 후 사범대학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배포·회수하여 SPSS로 분석을 실시한다.

고학력 이주민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다.

#### 라. 웹블렌디드 러닝

웹블렌디드 러닝은 교수법이자 동시에 연구방법이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웹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나타난 학습자의 인지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웹상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 집·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마. 개별 심층 면담

교수자는 가장 우수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 시한다. 우수한 학습자에게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 요소를 추출해 내도 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게는 전략 요소의 사용을 도와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II. 이러닝 진단 처방 시스템

# 1. 한국어 학습의 진단 처방 시스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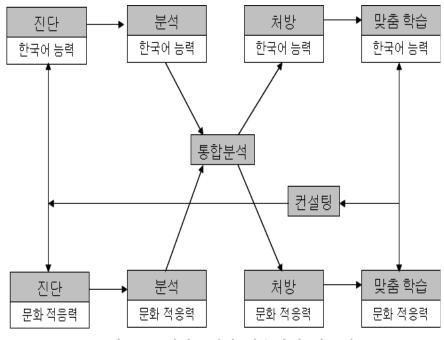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다. 오프라인 형태로 강의와 설명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학습 방식은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이러닝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려는 시도가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나. 이러닝 서비스란 정보, 의사 소통, 그리고 교육과훈련의 모든 요소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2. 이러닝 서비스는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교육 매체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닝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한 한국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육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습 관 리 시스템의 학습 경로 과정을 진단과 처방 위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하 였다. 둘째, 학습 경로를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으로 이원화하여 진 단을 실시하였다. 문화 교육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한국 문화 교육을 한국어 교육에 결합함으로써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시 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sup>1)</sup> 박은정 외 3인 (2008) 참조.

<sup>2)</sup>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참조.

과 한국 문화 습득 간의 상관 관계를 고려한 통합 분석을 한 후 진단과 처 방을 내림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II-1] 진단·처방 학습관리 시스템

# 2. 진단 처방 시스템 적용의 실제3)

# 가. 진단

## 1) 한국어 능력 진단

<sup>3)</sup>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2009)에서 재인용

## 진단 문항 관리

- 1. 주어는 어떻게 성립될까?
- 2. 주격 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3.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도 주어가 성립될까?
- 4.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 5.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는 어디일까?
- 6. 주어는 생략될 수 있을까? 생략된다면 언제 생략될까?
- 7. 주어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없을까?
- 8. 주격 조사가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는 없을까?

#### 진단 실시

- ⇒ 1. (1) 산이 구름 위에 우뚝 솟았다.
  - (2) 내가 이 편지를 영숙에게 전하였다.
  - (3) 셋이 둘보다 많다.
  - (4) 저 두 사람이 어제 우리를 도와 주었다.
  - (5) 지구가 둥글기가 공과 같다.
  - (6) 우리 편이 승리했음이 분명했다.
  - (7) 물이 얼음이 되다.
  - (8) 나도 아이들하고 놀고가 싶어서 나왔어.
  - (9) 그가 울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다나.
  - 2. (1) 할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시다.
    - (2)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3) 학생회 임원에서 매일 아침 학교 앞 청소를 한다.
    - (4) 우리 학교에서 더 유명한 학교이다.
    - (5) 선생님께는 낡은 집이 한 채 있으시다.
    - (6) 나에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다.
    - (7) 영희가 자기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 3. (1) 아버지 오셨다.
    - (2) 너 어디 가니?
    - (3) 우리 애 소풍을 갔어요.
    - (4) 하늘 무척 높고 푸르다.
    - (5) 어디 남대문 시장이에요?

- 4. (1) 이 시계는 어머니 입학 선물로 나에게 사주신 것이다.
  - (2) 농부들이 비 오기를 기다린다.
  - (3) 영희는 색깔 고운 우산을 새로 샀다.
  - (4) 영희는 밤 새도록 책을 읽었다.
  - (5) A: 영희가 이번 시험에 일등했니?

B: ㄱ.응, 영희 일등했어.

ㄴ.아니, 영수 일등했어.

ㄷ.아니, 영희 이등했어.

- 5. (1)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
  - (2) 하나 둘씩 나뭇잎이 떨어진다.
  - (3) 떨어진다 나뭇잎이 하나 둘씩.
  - (4) 나뭇잎이 떨어진다 하나 둘씩.
  - (5) 하나 둘씩 떨어진다 나뭇잎이.
  - (6) 떨어진다 하나둘씩 나뭇잎이.
- 6. (1) 불고기를 먹어 봤는데 참 맛있군요.
  - (2) 남대문 시장에 한 번 가 보세요.
  - (3) 저 노래를 들으면 참 슬퍼요.
  - (4) A: 아이들이 어디에 갔나요? B: 들에 나갔습니다.
- 7. (1) 도둑이야.
  - (2) 불이야.
  - (3)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4) 비가 오면 큰일이다.
  - (5)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다.
- 8. (1)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요.
  - (2) 본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말이다.
  - (3) 산 좋고 물 맑은 것이 여기가 바로 낙원이구나,

진단 자동 채점 및 결과 관리

잘못된 쓰임 1. (7), (8), (9) / 2. (3), (6)

3. (4), (5) / 4. (1), (5)  $\neg$ .

#### 2) 문화 적응력 진단

진단 내용 등록

⇒ 언어 예절(인사말)

진단 문항 관리

- 1. 아침, 저녁 인사말
  - 2. 전화 예절
  - 3. 소개할 때 순서
  - 4. 세배할 때 인사말
  - 5. 문상 갔을 때 인사말
  - 6. 문병 갔을 때 인사말
  - 7. 축하의 인사말
  - 8. 축의금 및 위로금 봉투의 인사말
  - 1. (1)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 (2) 진지 잡수셨습니까?
    - (3) 좋은 아침!
  - 2. (1)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 겠습니다.
    - (2)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 (3)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4)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진단 실시

- (5)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 3. (1) 관계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중 누구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할까?
  - (2) 손아래 사람과 손위 사람 중 누구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할까?
  - (3) 남성과 여성 중 누구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할까?
- 4. (1) 절 받으세요. (어른에게 새배 하면서)
  - (2) 올해도 건강하세요. (어른에게 세배 하면서)
  - (3) 할머니 오래 오래 사세요. (어른에게 세배 하면서)

- (4) 만수무강 하십시오. (어른에게 세배 하면서)
- 5. (1)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2) 얼마나 슬프십니까?
  -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4)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6. (1) 좀 어떠십니까?
  - (2)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 (3) 불행 중 다행입니다.
  - (4) 조리 잘 하십시오.
  - (5)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 7. (1) 오래 사십시오. (환갑이나 고희 등의 잔치에서)
  - (2)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3) 생신 축하합니다.
- 8. (1) 축 수연 (60세 이상)
  - (2) 축 환갑, 축 회갑, 축 화갑 (61세)
  - (3) 축 고희연, 축 희연 (70세)
  - (4) 축 희수연 (77세)
  - (5) 축 미수연 (88세)
  - (6) 축 백수연 (99세)
  - (7) 축 혼인, 축 결혼, 축 화혼 (결혼식)
  - (8) 부의, 근조 (문상)
  - (9) (그 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 (정년퇴임)
  - (10) 근축 (정년퇴임)
  - (11) 기 쾌유 (문병)
  - (12)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문병)

진단 자동 채점 및 결과 관리

⇒ 잘못된 쓰임 1. (3) / 2. (4) 4. (1), (2), (3), (4) / 7. (1)

## 나. 분석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안하는 진단·처 방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두 축으로 하는 통합 분석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 각각의 진단 결과를 반영한 상호 보완적인 통합 분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처방 및 맞춤 학습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의 진단과정을 통해 채점 및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 단계는 단순한 평 가의 개념이다. 이러한 평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 응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다음 단계인 처방으로 진행된다.

## 다. 처방 및 개인별 맞춤 학습

- 1) 오답 클리닉
- 가) 한국어 능력 오답 클리닉

오답 클리닉 ⇒ 다시 풀기, 정답 및 해설 보기

- 1. (1)~(6)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된다.
  -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명사구, (5) 명사형 어미 '-기'에 의한 명사절, (6) 명사형 어미 '-음'에 의한 명사절 (7) 보어 (8) 용언에 결합한 조사 '-가' (9) '그가 울면서 하는 말이'의 서술어가 없음.
- 2. (1) 주격조사는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가' 이외에 주어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께서'가 쓰인다.

- (2) 주어가 단체를 뜻하는 명사일 때는 '-에서'가 쓰인다.
- (3)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무정 명사인 것이 원칙이다.
- (4)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무정 명사라 하더라도 '-에서' 가 주격조사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5) '-에게'가 주격조사로 쓰일 경우 주어를 높여서 말할 때는 '-께'라 쓰인다.
- (6) '있다' '없다' '많다' 등이 서술어일 때는 '-에게'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7)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에게'는 부사격조사로도 쓰인다.
- 3. (1)~(2) 주격조사가 없이도 격관계가 분명한 경우이다.
  - (3)~(4)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대로 말할 때 주격조사 는 생략할 수도 있다.
  - (5) '어디, 누구' 등의 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주격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 4. (1) 주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안긴 문장속의 주어에 쓰인 주격조사는 생략하기 어렵다.
  - (2)~(4) 안긴 문장 속의 주어에 쓰인 주격조사도 생략할 수 있다. (2): 명사절 (3): 관형절 (4): 부사절
  - (5) 판단의문문의 대답에서 긍정의 대답은 주격조사가 생략되지만 부정의 대답은 주격조사가 생략되지 않 는다. 또, 부정의 경우라도 대답하는 말이 의문문의 서술어와 다를 때는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 5. (1)~(6) 주어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강조와 같은 문체적인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 6. (1) 주어는 문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문맥으로 보아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2) 명령문은 주어가 이인칭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되어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 또 그렇게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 (3) '기쁘다, 슬프다, 좋다, 싫다, …'와 같은 느낌 형용 사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의 느낌, 감정을 서술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하며, 이 때의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 (4)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아이들' 이 주어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7. (1)~(4) 주어는 문장의 필수적 성분인데 때로는 주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1)~(4) 의 예문은 주어가 무엇인지, 그것이 생략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제한된 수의 고정적인 관용어구로 한정된다.
- 8. (1) '좋지가'의 조사 '-가'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지 않다. 용언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 (2) '본래가'의 조사 '-가'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지 않다. 격조사는 부사에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 (3) '산 좋고 물 맑은 것이'의 조사 '-이'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 문이다.

#### 나) 문화 적응력 오답 클리닉

# 오답 클리닉 ⇒ 다시 풀기, 정답 및 해설 보기

- 1. (3) '좋은 아침!'은 외국어를 직역한 말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 3. (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 사람에 게 소개한다.
  - (2)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 4. (1)-(4)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덕담은 어른이 아 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할머니 오래 오래 사세요' 라든가 '만수무강 하십시오' 와 같이 건강과 관련 있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5. (1)~(4)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 등과 같이 인사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부모상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인사말인 '얼마나 망극하십니까.'를 쓸 수 있다.
- 6. (1)~(5) 문병을 가게 될 경우에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
- 7. 어른의 생신일 경우, '오래 사십시오.' 등은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 하는 것이 좋다.
- 8. (1)~(12) 회갑, 결혼식, 문상 등에서 축의금, 조의금을 낼 때는 각각에 맞는 문구를 봉투에 쓰되 한글로 써도 무방하다.

#### 2) 수준별 학습 및 심화학습

- (1) \*친구 선물을 주었습니다.
- (2) \*김 선생님 전화했어요.
- (3) 너 지금 꼭 그 일을 해야겠니?
- (4) \*공부 잘하는 너 그런 쉬운 문제를 못 풀다니

"주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성분 중 다른 성분이 생략 되었을 때에는 주격조사를 생략하기 어렵다." - 국립국어원(2005)

예문(1)에서 서술어 '주다'는 세 가지 필수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 이다. 그런데 예문(1)은 두 가지 필수성분 밖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문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1)에서 '주다'가 필수성분 세 자리를 모두 갖춘다고 해도 예문 (5)와 같이 여전히 주격조사는 생략하기 어렵다.

(5) \*친구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문(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술어 '전화하다'는 두 자리 필수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한자리 필수성분 밖에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문이 된다고 기 술하고 있지만. 예문(6)과 같이 서술어 '전화하다'가 두 자리 필수성분을 갖 추어도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6) \*김 선생님 나에게 전화했어요.

"주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길면 주격조사를 생략

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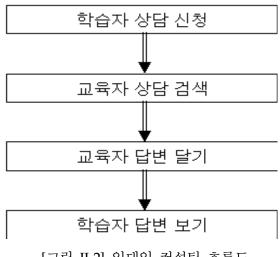
예문(3)의 경우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없으면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예문(4)의 경우 수식하는 말이 다소 길기 때문에 주격조사의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7)을 보면 수식하는 말이 길더라도 주격조사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7) 그림 한번 잘 그리는 화가 선생 잘 계신가?

따라서 수식하는 말의 길고 짧음은 주격조사 생략 조건이 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은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라. 컨설팅

이 글에서의 컨설팅이란 한국어 교과 내용이나 지식을 알려주는 답변 수준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How to learn)에 대한 컨설팅을 뜻한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학습 효과를 올릴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교육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달아줌으로써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이다.



[그림 II-2] 일대일 컨설팅 흐름도

# 3. 진단 처방 시스템의 활용 방법

진단 처방 시스템의 적용은 문장 구조의 이해와 문법 요소의 이해로 분류된다.

### 가. 문장 구조의 이해

다음은 신문기사문 등에서 뽑은 글이다. 어법에 어긋난 곳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또 틀린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유형 분류 해보시오.

예: 논리적 모순과 비약, 성분 사이의 호응, 성분의 누락과 생략, 접속, 조사, 수식, 적합한 단어의 선택 등

1. 이 비디오가 입수되고 방영된 시점의 선택과 그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사담 후세인 폭압정치의 종식을 내걸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두둔 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2. 물러나는 김대중 정부나 새로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인수 인계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켜 경기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 3. 그러나 강대국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7년간의 전쟁으로 북위 17°선을 경계로 하여 분단되었다.
- 4.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그림 2] 일대일 컨설팅 흐름도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
- 5. 먼저 SK 비자금 진상부터 규명한 연후 고해성사를 하든, 특검을 통해 대선 자금 전모를 규명하든 정치개혁을 위한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받는 것밖에는 묘책이 없다.
- 6.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18세기를 전후하여 백성을 위한 실학 운동을 전개하는 선비들이 있었다.
- 7.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 나라에서 원유값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거나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중산에 대한 기대는 부차적이다.

8.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 총기강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치안의 효율을 높이고,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힌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

10.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11.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나이지리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불확실한 패스웍과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다.

12. 이번 개혁안은 확고한 전쟁억제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과 미래전에 대비한 다는 목적아래 군구조 조정, 방위력, 군수조달업무, 인사 및 교육제도 개선과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전반에 걸쳐 있다.

13. 죽어 가는 남해를 살리는 길은 어민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 쓰레기와 생활하수를 마구 버리는 공장과 주민, 그리고 당국간의 유기적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보수적인 틀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신성한 본래 모습으로 개혁되 고 반성하길 촉구한다.

15. 농성 학생들을 어째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용공적으로 반미적인 그러한 분자들같이 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 또한 노동부 장관은 다른 부처 업무와의 조화까지를 고려해 국정 전반을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집단의 이해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17. 이인준(李仁俊) 중구청장은 "중국산 수산물 납 파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매우 커졌다"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구입할 수 있도록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8. 뉴욕타임스는 후세인의 생존에 의문을 표시하는 럼즈펠드 등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들은 이라크 국민에게 후세인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살아 있다면 존재를 입증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증시 부양을 위해 특별 담보 대출 등 주식 개입 자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상품 주식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팔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최근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가가 일시 하락세를 멈춘 틈을 타 교체 매매를 핑계로 상품 주식을 대거 매매하고 있다.

20. 노벨상 수상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글은 이렇게 계속된다: "칠레는 혁명이 별로 없었으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정부들을 가졌던 오랜 역사의 나라다. 작은 대통령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은 두 명뿐이었다." 그 하나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로 사망한 살바도르 아옌데였다. 지난 추석 문득 그의 30주기가 떠올랐다.

쿠데타에 뒤따른 피와 살육의 제전 얘기를 요행히 몸을 피한 칠레 학생들에게 서 들으면서 서슬 푸른 긴급조치 아래 데모하면 사형이었던 당시 내 조국의 독재와 탄압에 서린 서러운 기억 때문일지 모르겠다.

## 나. 문법 요소의 이해

문법 요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단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 부정법의 이해
   '안' 부정법, '못' 부정법, '말다' 부정법
- 피사동법의 이해
   접미사에 의한 구성과 보조동사에 의한 구성의 차이
- 존대법의 이해
   직접 존대법과 간접 존대법, 삼자 간의 존대법
- 연결 어미 쓰임의 제약
   종결 어미 제약, 시제 선어말어미 제약, 결합 동사 종류의 제약, 동일 주어 제약
- 시상법의 이해
- 격조사 생략의 제약 조건 이해
- 유사 종결 어미의 변별
- 어순 제약

위에서 제시한 진단 내용 중에서 '부정법'과 '어순'의 실제 문항을 제시해 본다.

#### ○ 부정법

진단 내용 등록

⇒ 부정법의 제약4)

# 진단 문항 관리

- 1. 서술어가 파생어일 때는 짧은 '안'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 는가?
  - 2. 서술어가 합성어일 때는 짧은 '안'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가?
  - 3. 서술어가 상징어에서 파생된 용언이면 짧은 '안' 부정문 을 허용하지 않는가?
  - 4. 어미 '-어다'가 개입된 합성어 중에도 짧은 '안' 부정문 형 성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 예문 (11)~(15)의 자료와 <표1>을 보고 유형A~유형F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더 찾아본다.

(1)\*요즘 서울 하늘은 안 새파랗다.

(2)\*너는 어째서 그 분은 안 본받느냐?

(3)\* 나는 그를 안 추천했다.

(4) 고기가 안 연하다.

진단 실시

- ⇒ (5)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 (6)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다.
  - (7)\*오늘은 파도가 안 철렁댄다.
  - (8) 영수가 태권도를 배우더니, 안 덤벙댄다.
  - (9)\*그는 무서워서 아래를 안 내려다보았다.

- (10) 그는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쳤다.
- (11) ㄱ. 우리는 담을 쌓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
  - ㄴ. 우리는 담을 쌓지 못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
  - ㄷ. 우리는 그들과 담을 쌓지 않고 친하게 지냈다.
  - ㄹ. 우리는 그들과 담을 쌓지 못하고 억지로 왕래했다.
- (12) ㄱ. 그 여자는 코가 높지 않아서 늘 불만이다.
  - ㄴ. 그 여자는 코가 높지 못해서 늘 불만이다.
  - ㄷ. 그 여자는 코가 높지 않아서 상대하기가 편하다.
  - 리. 그 여자는 코가 높지 못해서 상대하기가 편하다.
- (13) □. 그는 김칫국을 마시지 않았다.
  - ㄴ. 그는 김칫국을 마시지 못한다.
  - ㄷ. 이번에는 미리 김칫국을 마시지 않겠어요.
  - ㄹ. 이번에는 미리 김칫국을 마시지 못하겠어요.
- (14) ㄱ. 영수는 학교의 벽을 넘지 않았다.
  - ㄴ. 영수는 궁궐의 벽을 넘지 못했다.
  - ㄷ. \*영수는 90점의 벽을 넘지 않았다.
  - ㄹ. 영수는 90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 (15) ㄱ. 그는 뼈를 깎지 않고 갈았다.
  - ㄴ. 그는 뼈를 깎지 못하고 포기했다.
  - ㄷ. \*그는 뼈를 깎지 않는 아픔을 참아냈다.
  - ㄹ. \*그는 뼈를 깎지 못하는 아픔을 참아냈다.
- (16) ㄱ. 밀짚모자를 쓰면 낮이 뜨겁지 않아서 좋다.
  - ㄴ. \*밀짚모자를 쓰면 낯이 뜨겁지 못해서 좋다.
  - ㄷ. 이번 성적은 낮이 뜨겁지 않게 나왔다.
  - ㄹ. \*이번 성적은 낯이 뜨겁지 못하게 나왔다.

<sup>4)</sup> 김홍범 (2008) 참조.

<표 II-1> 관용어의 부정 표현 양상5)

	부정 형태		직설적 용법		관용적 용법	
관용어		'안'부정	'못'부정	'안'부정	'못'부정	
유형 A	담을 쌓다	0	0	0	0	
유형 B	미역국을 먹다	0	0	0	Х	
유형 C	벽을 넘다	0	0	X	0	
유형 D	낯이 뜨겁다	0	X	0	Х	
유형 E	뼈를 깎다	0	0	Х	Х	
유형 F	냄새 맡다	(X)	0	Х	0	

### (3) 어순

진단 내용 등록

⇒ 어순 바꾸기의 제약

# 진단 문항 관리

- 1. 부사어의 갈래에 따라 어순의 제약이 달라지는가?
  - 2. 상징 부사류는 어순이 자유로운가?
  - 3. 부사어가 필수성에 따라 어순의 제약 현상이 달라지는 가?
  - 4. 같은 문장 속에 동일한 격조사가 쓰인 성분이 두 개 이 상 있을 때는 어순을 바꿀 수 없는가?
  - 5. 동일한 용언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쓰일 때 어순을 바꿀 수 없는가?

<sup>5)</sup> 김홍범 (2009기) 참조.

(1) ¬.<u>다행히</u> 자동차만 부서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ㄴ.자동차만 부서지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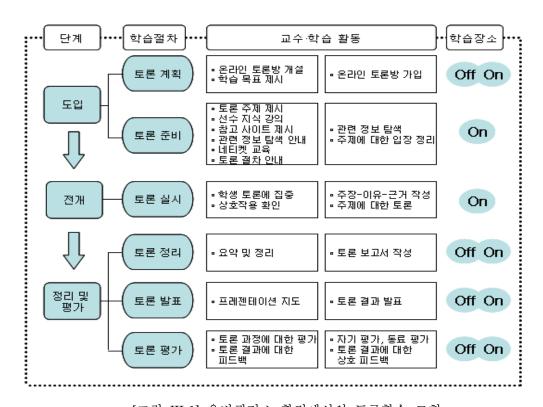
- (2) 기. 너는 나중에 <u>잘</u> 살거야.나.\*너는 잘 나중에 살거야.
- (3) ¬. 공이 <u>데굴데굴</u> 구른다.└.<u>데굴데굴</u> 공이 구른다.
- (4) ¬.시험이 끝나자 도서관이 <u>텅</u> 비었다. └.\*시험이 끝나자 텅 도서관이 비었다.
- (5) ㄱ. 그는 아들을 <u>축구선수로</u> 만들었다. ㄴ.\*그는 축구선수로 아들을 만들었다.
- (6) 기. 그는 필통을 <u>참나무로</u> 만들었다. 나. 그는 참나무로 필통을 만들었다.
- (7) 기. 왜 그렇게 나를 <u>귀찮게</u> 구니?나.\* 왜 그렇게 귀찮게 나를 구니?
- (8) ㄱ. 네가 <u>온 몸을 먼지를</u> 뒤집어썼구나. ㄴ.\*네가 <u>먼지를 온몸을</u> 뒤집어썼구나. ㄷ. 네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썼구나.
- (9) ¬. 내가 여기서 <u>너를 한시간을</u> 기다렸다. ㄴ. 내가 여기서 한시간을 너를 기다렸다.
- (10) ¬.<u>내게</u> 돈이 있는데 좀 꾸어줄까? ㄴ.\*돈이<u>내게</u> 있는데 좀 꾸어줄까?
- (11) 기.<u>내게</u> 회사돈이 있는데 좀 꾸어줄까? 나. 회사돈이 내게 있는데 좀 꾸어줄까?

진단 실시

# Ⅲ.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문법 교수법

# 1. 온라인 토론 학습 모형이

유러닝의 특성과 문법 교육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유러닝기반의 토론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3에서는 학습 과정을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토론 절차 및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과 학습 장소를 제시하였다. 학습 장소는 오프라인 상의 교실과 온라인 학습방을 off, on으로 표시하였으며, 학습 시간은 수업을 통한 실시간과 수업 이외의 비실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는 하지 않았다.



[그림 III-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토론학습 모형

<sup>6)</sup>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2010)에서 재인용

## 가. 토론의 절차와 방법

이 항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3단원 '단어'에 속해 있는 중단원(1단원) '단어의 형성' 중에서 소단원(2단원) '단어의 형성'의 교수·학습을 예로 보이고자 한다.

#### 1) 토론 계획

유비쿼터스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법 수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업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 장소를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한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학습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교사활동>

#### ① 온라인 토론방 개설

온라인 토론방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필요하다. 먼저, 학습목표 및 토론 주제를 공지하는 메뉴가 있어야 하고, 선수학습 및 자료 제시를 위한 메뉴도 필요하다. 그리고 질의응답 메뉴, 토론 내용 및 토론 보고서 탑재를 위한 메뉴, 상호평가 및 자기 평가를 위한 메뉴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②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기준을 발표할 수 있다." 학습목표는 온라인 토론방에 미리 공지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활동>

• 학습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토론방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 2) 토론 준비

### <교사활동>

### ① 토론 주제 제시

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작은아버지란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을 이르는 말이다'라는 문장에서, '작은아버지'는 파생어이다." 토론 주제 역시 토론방에 미리 공지하여, 학습자가 찬·반의 입장을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선수 지식 강의

선수 학습은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토론방에 탑재하거나, EBS 교육방송을 활용하도록 한다. 관련 강의는 중학교 생활국어 2-2의 2단원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이다.

③ 참고 사이트 제시 (기초 자료 제공)

교사는 학습자들이 토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고가,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단, 찬성의 입장을 선택한 학생과 반대의 입장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자료 제공 코너를 각각 개설한다. 제시된 기초 자료 외에 이와 유사한 예를 학습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찬성 입장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8)

### • 표준국어대사전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반대 입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up>7)</sup> 활용 가능한 사이트는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한국문법교육학회 (http://www.grammaredu.net/), 한글학회 (http://www.hangeul.or.kr/) 등이 있다.

<sup>8)</sup>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참조.

•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큰사전」 등에는 '작은'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고 기본형 '작다'가 등재되어 있다.



# ④ 관련 정보 탐색 안내 (정보 가공 안내)

교사는 온라인 토론 학습방에 제시한 토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이트는 가급적 공공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다.9 기초 자료 활용법을 안내하고, 같은 입장을 선택한 학습자들끼리 조를 이루도록 한다. 그리고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충분한 학습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네티켓 교육

온라인 토론시 유의사항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⑥ 토론절차 안내

교사는 토론의 절차를 학습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토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토론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선수학습 후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한 찬·반의 입장에 따라 조가 구성된다. 같은 입장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토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의를 온라인 토론방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분단별 찬·

<sup>9)</sup> 조경희 (2010) 참조.

반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토론이 끝나면 분단별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 자료가 완성되면 분단별 발표를 통해 학급 전체 학생들과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게 된다.

### <학생활동>

### ① 관련 정보 탐색

학생들이 조별 토의를 통해 기초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근거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찬성 입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상된다.10)

- '작은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작은-'은 접사이다. 따라서 '작은아버지'는 파생어이다.
- 접사 '작은-'의 의미는 일반적인 '작다'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접사 '작은-'의 경우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주로 쓰인다 (예) 작은어머니, 작은집, 작은언니, 작은할머니 등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주로 쓰이는 접사 '작은-'의 경우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근과 어미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잡을 수 있다.
- 분포가 '친족 관련 어휘'로 제한적이다.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입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상된다.

• '작은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작은'은 접사가 아니다. 따라서 '작은아버지'

<sup>10)</sup> 박형우 (2004) 참조.

는 합성어이다.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주로 쓰이는 '작은'이 일반적인 '작다'와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일반적인 '작다'의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설문 조사 첨부) 대부분 이러한 의미 차이 정도는 '작다'의 의미에서 유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한다른 국어사전에서는 모두 이 단어들을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국어사전에 대한 정보 첨부)
- 문법교과서에서도 '작은아버지'와 유사한 단어형성법을 보이고 있는 '큰 아버지'를 합성어로 인정하고 있다.
- '작은'을 접두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접두사를 다시 분석하여 어 근과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 실제 용언 중에는 관형사형의 경우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일부 있다. '멀다'와 '길다' 등의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경우 현실 언어에 서 '-ㄹ'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먼 산, \*멀 산, 긴 강, \*길 강
- '작은'의 경우 친족 관련 어휘에서 분포 제약이 거의 없으며, 상당히 생산적이다. 또한 비자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작다'의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② 주제에 대한 입장 정리 찬·반 각각의 학습자들은 마련한 근거를 토대로 주제에 대한 입장을 정 리하여 토론에 대비한다.

### 3) 토론 실시

토론은 분단 토론과 모둠별 토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11) 먼저 분 단 내에서 찬성과 반대 학생들을 각각의 모둠으로 나눈다. 같은 입장을 선 택한 학생들끼리 온라인 토론방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주장을 위한 근거

<sup>11)</sup> 이러한 토론방법은 직소 모형을 변형한 것이다.

를 마련한다. 온라인 토론 내용은 저장하여 과제 탑재 코너에 탑재할 수 있 도록 한다.

같은 입장을 선택한 학습자끼리의 토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함께 기초 자료를 가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토론 과정을 둘로 나누는 데에는 최대한 다수의 학습자가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교사활동>

① 학생 토론에 집중

교사는 분단별로 찬반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한 분단에 두 모둠씩, 한 모둠에 네 명씩으로 구성하면 4~5분단 정도가 찬· 반 토론을 진행 할 수 있다.

② 상호작용 확인

문법 교육을 위한 토론학습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주장을 게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 <학생활동>

- ① 주제에 대한 토론 학습자는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 ② 주장-이유-근거 작성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토론방에 게시한다. 예를 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설문 조사의 결과를 자기 주장의 뒷받침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4) 토론 정리

### <교사활동>

• 분단 별로 토론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학생활동>

• 학습자는 이상의 토론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한다.

## 5) 토론 발표

### <교사활동>

•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활동>

• 보고서를 참고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토론결과를 발표한다.

# 6) 토론 평가

### <교사활동>

- ① 토론 과정에 대한 평가 분단 순회 지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과정에 대해 평가 하다.
- ② 토론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교사는 분단별 토론 결과에 피드백한다. 피드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작은아버지'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파생어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단어형성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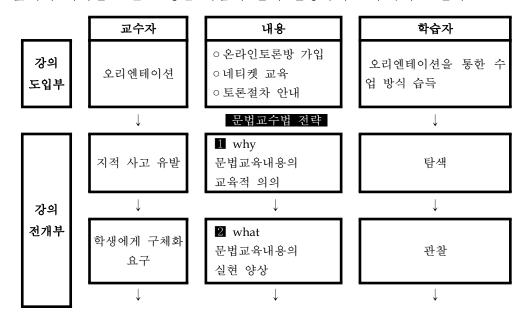
학습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사전에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교과서에서 합성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파생어다, 혹은 합성어다가 아니라, 단어형성의 근본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이 토론의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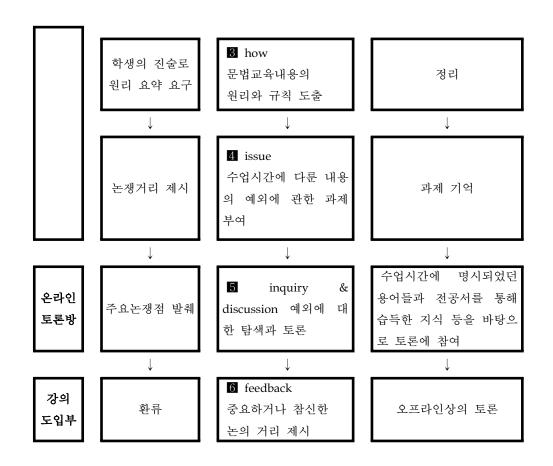
### <학생활동>

- ① 자기평가, 동료 평가 교사가 제공한 평가지의 준거를 기준으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를 한 다.
- ② 토론 결과에 대한 상호 피드백 토론 결과에 대한 상호 피드백은 온라인 토론방 게시판에 탑재하여 서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토론 학습 모형의 변형

앞에서 제시한 토론 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교수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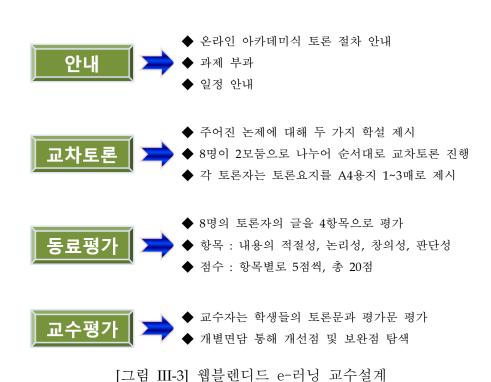
[그림 III-2] 문법토론식 웹블렌디드 러닝의 설계

[그림 III-2]는 문법토론식 웹블렌디드 러닝의 설계를 보인 것이다. '강의도입부'에는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단계로, 수업의 절차에 개괄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문법교수법 전략은 '강의 전개부'에서 시작된다. 1단계 'why'에서는 문법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단지 내용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음을 '제약과 변별'의 간단한 예를 통해 원리적으로 설명하여, 대학생의 지적 사고를 자극한다. 2단계 'what'에서는 '제약과 변별'에 관련된 비슷한 범주의다른 예를 제시해 대학생 스스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찰해 문제점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3단계 'how'는 2단계를 통해 얻은 결론을 문법적 원리가

드러나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수업의 마지막인 4단계 'issue'는 본격적 과제인 '중간범주'에 관련된 문법 내용을 제시하고, 온라인 토론방에서 논쟁이시작되는 5단계 'inquiry & discussion'에서 본격적인 문법토론이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6단계 'feedback'에서는 대학생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원리적 설명을 정리해 주도록 한다.

# 2. 문법 토론의 실제와 분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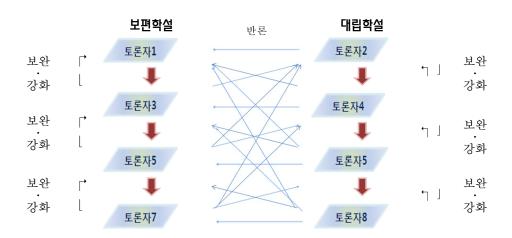
[그림 III-3]의 문법교수법 설계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온라인상으로 아카데미식 문법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수업안은 아래와 같다.



\_\_\_\_

12) 김홍범·이경연(2010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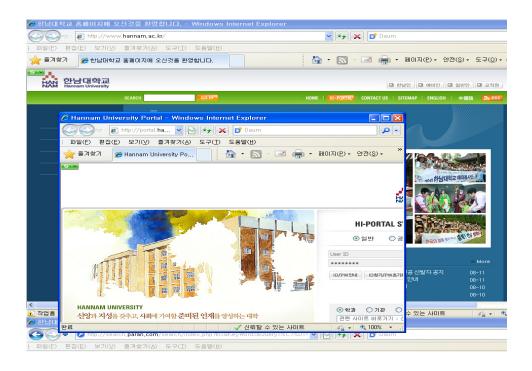
[그림 III-4]는 [그림 III-3]의 교수설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교수설계모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방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제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그리고 토론방에서 과제를 확인하도록 하고, 과제 해결에 사용할 '자료, 문제해결전략, 문법논리'와 평가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문과 평가문을 통해 학생의 문법논리의 오류를 적절하게 처치하고, 토론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본 교수설계를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문법토론의 핵심이 되는 교차토론은 아래와 같은 논리보완・반론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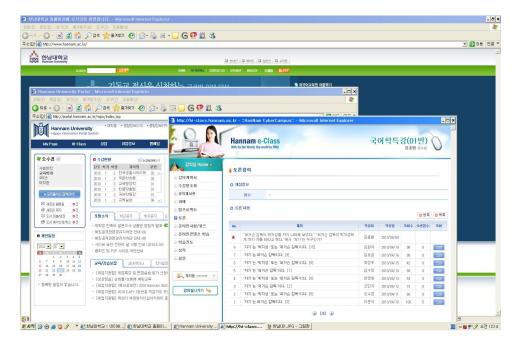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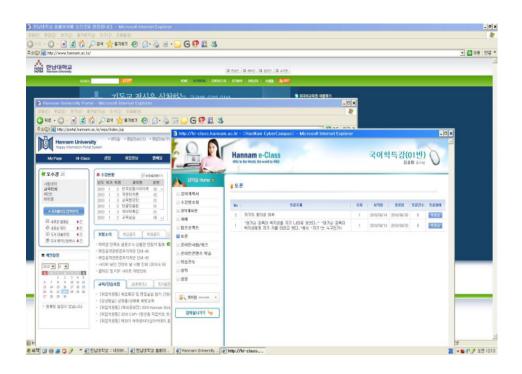
[그림 III-4] 교차토론 진행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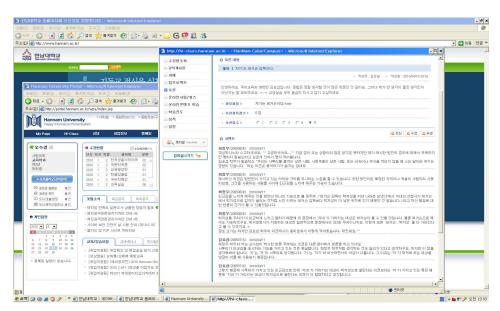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본 토론은 교차토론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토론이 '긍정측, 부정측'의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과 약간 다른 양상을 지닌 다. 즉, '보편학설, 대립학설'로 나뉘거나 '학설1, 학설2' 등의 입장을 가진 두 모둠이 각 모둠에서 옹호하는 학설의 논리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상대의 논리상의 오류나 허점을 논파하도록 진행한다.

이상의 교수설계모형을 바탕으로 H사범대학의 HI-PORTAL 사이트의 '국 어학특강 토론방'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실제 토론방의 모 습은 아래와 같이 구현되었다.









[그림 III-5] H사범대학 HI-POTAL 사이트

[그림7]의 사이트를 활용해 학생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전공서나 논문 등의 자료를 탐색한 후, 문법논리를 만들어 내어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글을 올 린다. 그리고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토론문에 대한 평가문을 올리도록 하였다.

토론문과 평가문의 실제 지문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박도순 (2008:290)은 내용분석법의 특성을 명백한 의사소통의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양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의사소통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감에 의존해서 답변하는 설문지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통해 분석하여 양화한다. 따라서 분석의 준거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가진다. 다음 절에서는 일반적인 토론과 문법의 논리와 규칙에 기반한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계자인 면담자가 8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1시간~30분 정도로 실시하였다. 면담 도중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부가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면담자료는 녹화를 하여, A4용지 22쪽 분량으로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 가. 토론 담화 분석의 틀 설정

학생들의 '토론문, 평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준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토론규칙과 문법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 1) 토론과 아카데미식 토론

우선 토론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술담론에 나타난 정의를 살펴보고 자 한다.

토론(debate)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대립하는 두팀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거에 의한 주장과 이에 대한 검증, 의논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강태완 외, 2005:15)

토론은 주어진 논제에 관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과 청중을 설득하는 행위이다.(이상철 외, 2007:250)

이상과 같이 토론은 긍정측과 부정측으로 명확히 입장이 나뉘어 상대방의 논리를 논파한다는 점과, 주로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 에서 토의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토론은 대중화됨과 동시에 전문화되는 경 향을 띠면서, 뚜렷한 형식을 가지는 토론의 양식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글에 서는 아카데미식 토론이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아카데미식 토론이란 '아카데미'라는 말 뜻 그대로 토론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배우고 엄격한 토론 형식 및 절차를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 방식으 로 정의할 수 있다.(강태완 외, 2005:4)

아카데미식 토론은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고, 다른 토론에 비해 학술담론을 다루는 형식으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였다.

아카데미식 토론의 대표적 형식에는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 형식, 링컨-더글러스 토론(Lincoln-Douglas debate) 형식, 의회토론(parliamentary debate) 형식, 칼 포퍼 토론(Karl Poppper Debate) 형식, 모의재판 형식(mock trial debate) 형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토론대회형식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 CEDA 토론 형식이다.

CEDA는 교차조사 토론 형식 또는 교차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심문 토론 등으로 불리고 있다.13) 찬성-반대의 2팀이 각 2명씩의 토론자는 '입론-질문-반박'의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진다. 1947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전국토론연맹(NDT)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1971년 교차조사학회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넣어 시작된 데서 시작된 토론 방식이다.(이상철 외, 2007:268)

아카데미식 토론은 토론 참가자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둘 다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토론 시간과 순서가 미리 짜여 있고, 사회자는 진행자로서의 역할 만 하며, 숭패를 나눈다는 점에서 비형식적 토론과 차이가 난다.(한상철, 2006:7-9)

### 2) 토론문

학생들은 A4용지 1~3매 정도 분량의 토론문을 작성하였고, 약 16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제는 아래와 같다.

- (1)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자기 나라로 보냈다.
- (2)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자기 차를 타라고 했다.

<sup>13)</sup> 본고에서는 교차토론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 <논제>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토론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Freeley(1996)의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의 방법들을 논의하였는데, 강태완 외(2005)는 '논제-증명의 부담-필수쟁점-교차조사-반증의 부담-대체방안', 이정옥(2009)는 '입론-확인질문-반론-최종발언' 등의 절차를 가진다. 그리고이상철 외(2007)에서 토론의 기본원칙으로 '추정의 원칙, 입증의 책임, 논제관련성, 반증의 책임'을 들면서, 긍정측 입론 내용 구성 방법으로 '주요 용어, 정당화, 방안, 이익과 부작용'을 들었고, 부정측 입론 내용 구성 방법으로 '주요 용어, 정당화, 방안에 대한 부정, 이익과 부작용, 부분개선, 대체방안'을 들었다.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 영역을 '분석력, 논거, 토론 규칙'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래는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과목의 교수-학습방법을 일부발췌한 것이다.

- (8) '문법' 지도의 경우,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탐구 학습을 수행하여 문법 규칙이나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게 지도한다.
  - (개) 주어진 자료에 대한 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 (내) 해당 논제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 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국어 자료를 수집한다.
  - (라)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 과정에 따라 규칙이나 원리를 도출 한다.
  - (마) 도출된 규칙이나 원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거나 반례를 든다.

문법교육은 탐구학습모형으로 대표되는데, '문제제기-가설설정-자료수집-원 리도출' 등으로 정리되며,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학습목표라 할 수 있 다. 이경현(2009:251-252)은 'CPS에 기반한 문법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문제제시(확산)-개념 확인(수렴)-문제상황분석(확산)-문제규정(수렴)-아이디어생성(확산)-해결안(수렴)-수행(확산) 및 평가(수렴)'의 과정을 통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교차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문법 영역을 '자료선정, 규칙도출과정, 규칙원리적용'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III-1> 토론문 분석 준거

토론영역 문법영역	분석력	논거	토론규칙
자료 선정	<ul><li>▷ 기존의 보편적 학설</li><li>▷ 여타의 학설</li></ul>	▷ 이론인용	<ul><li>▷ 자료제시</li><li>▷ 논제와 관련성</li></ul>
규칙도출과정	▷ 조건 ▷ 증명과정	▷ 상황맥락         ▷ 문법적 논리         ▷ 언어적 직관         ▷ 설명방법	<ul><li>▷ 문제 정의(재정의)</li><li>▷ 토론의 장 확대</li><li>▷ 상대 의견 점검</li><li>▷ 논거 제시</li></ul>
규칙원리적용	▷ 적용범위	▷ 논의확대	<ul><li>▶ 부정</li><li>▷ 반증</li><li>▷ 부분개선</li><li>▷ 대체방안</li></ul>

<표 III-1>에 나타난 항목들을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2> 토론문 분석 준거 구체화

항목	내용
기존의 보편적 학설	전공서나 일반적 권위를 가진 학설
여타의 학설	기존의 학설을 부정하는 새로운 학설이나 대립학설

조건	증명과정의 전제조건
증명과정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 합리화하는 과정
적용범위	일반화하기 위해 논한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 확인
이론인용	권위 있는 이론을 그대로 인용해 제시한 경우
상황맥락	앞뒤 맥락에 의해 의미나 논리를 파악
문법적 논리	문법적 분석을 통해 논의 전개
언어적 직관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따른 판단
설명방법	일반적인 설명 방식
논의확대	새로운 문장이나 이론의 범위 확대
자료제시	새로 작성한 예문 제시
논제와의 관련성	주어진 논제와의 내용적·문법적 관련성
문제 정의(재정의)	주어진 논제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확인
토론의 장 확대	주어진 논제를 새로운 장면에서 논의를 전개
상대 의견 점검	상대편 토론자의 논의 진행 확인
논거 제시	논제를 합리화할 뒷받침 논거
부정	상대편의 논의를 부정
반증	부정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 할 논거 제시
부분개선	상대편 논의를 일부 개선
대체방안	주어진 논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

<표 III-2>의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토론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 3) 평가문

평가문은 앞의 토론문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평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준거들을 항목화 하였다.

<표 III-3> 평가문 판단 준거

판단근거	범주	설명방법	의견
▷ 상황맥락	▷ 논리성	▷ 정의나 지정	▷ 동의
▷ 문법적 논리	▷ 판단성	▷ 비교나 대조	▷ 부정
▷ 언어적 직관	▷ 창의성	▷ 예시	▷ 보완
▷ 보편적 이론	▷ 관련성	▷ 과정	▷ 적절
▷ 증명과정		▷ 인용	▷ 부적절
▷ 조건		▷ 가정	
▷ 적용범위		▷ 이유제시	
▷ 특성이나 개념		▷ 대입, 치환, 교환	
▷ 자료조사		▷ 실제 적용	
▷ 반론		▷ 문제 해결	
▷ 논제나 주제, 내용			
▷ 논의 확장			
▷ 논거			
▷ 표현			
▷ 해석			

'판단근거'에서 '특성이나 개념, 자료조사, 표현, 해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성이나 개념'은 문법용어나 규칙의 특성이나 개념을 의미하고, '자료조사' 는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말하고, '표현'은 논의 과정 중에 나타난 문장 표현의 적절성을 뜻하며, '해석'은 주어진 논제나 예문 등을 풀이해서 기술 함을 나타낸다. '논리성, 판단성, 창의성'은 학생들에게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이다. 윤준채(2008:83)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힐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정의적 성향을 포함한 사고 능력을 '비판적 사고력'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논리에 대한 논쟁은 '가치'라는 정의적 측면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측면이주로 나타나므로 '비판성'이라 하지 않고 '판단성'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관련성'은 평가항목의 '내용의 적절성'에 많이 드러나고, 다른 항목과 뚜렷이구분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설명방법'은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지만, 문법논리에서는 '인과'보다는 '이유 제시'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고, 수학 증명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입, 치환, 교환'이 문법에서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목으로 넣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은 문법논리는 현실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하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상의 평가 준거를 바탕으로 평가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 나. 토론 담화 분석

이 절에서는 H사범대학 HI-PORTAL에 올린 16쪽 정도의 토론문과, 28쪽 정도의 평가문, 토론문을 올린 8명 학생과의 면담자료를 대상으로 '내용분석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 1) 토론문

앞 절의 토론문 분석 기준에 따라 나타는 분석을 하고, SPSS 12.0k를 이용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II-4> 토론문 분석 결과(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존의 보편적 학설	3	1.1	1.4
	조건	16	6.0	7.3
	증명과정	28	10.5	12.8
	~~~~~~~~~~~~~~~~~~~~~~~~~~~~~~~~~~~~~	1	.4	.5
	적절한 예문	4	1.5	1.8
유효	상황맥락	21	7.9	9.6
	현실적 언어관습	23	8.6	10.6
	언어적 직관	10	3.7	4.6
	설명방법	87	32.6	39.9
	논의확대	25	9.4	11.5
	합계	218	81.6	100.0
	결측값 <sup>14)</sup>	49	18.4	
	합계	267	100.0	

토론문에서 '설명방법(39.9%)'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다음으로 '증명과정 (12.8%), 논의확대(11.5%), 현실적 언어관습(10.6%)'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여타의 학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범대학생은 대체로 교사임용시험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다양한 학설보다는 보편적 학설을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습 전에 다양한 논문을 볼 수 있

<sup>14)</sup> 여기서 '결측값'은 전체 항목에 대한 것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유효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 III-5> 토론문 분석 결과(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의	12	4.5	13.3
	비교나 대조	7	2.6	7.8
	예시	20	7.5	22.2
	과정	19	7.1	21.1
유효	인 <del>용</del>	5	1.9	5.6
	가정	9	3.4	10.0
	이유제시	10	3.7	11.1
	대입,치환,교환	8	3.0	8.9
	합계	90	33.7	100.0
	결측값	177	66.3	
	합계	267	100.0	

토론문의 설명방법으로는 '예시(22.2%), 과정(21.1%), 정의(13.3%), 이유제시(11.1%), 가정(10%)'의 순으로 쓰였다. 비문학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예시'가다수 드러나는데, 주어진 논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문을 제시하여 논리를 증명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과정'의 설명방법이 주로 드러나는데, 문법 역시 이와 비슷한 학문적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증명과정을 정교하게기술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문법 증명과정이 되도록 전략을 제시해야 할필요가 있다.

<표 III-6> 토론문 분석 결과(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논리성	34	12.7	23.6
유효	판단성	98	36.7	68.1
<sup>규요</sup> ************************************	창의성	12	4.5	8.3
	합계	144	53.9	100.0
	결측값	123	46.1	
	합계	267	100.0	

토론문은 토론이라는 특성상 상대편 논리의 허점을 논파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화하고자 하는 성격을 띤다. 논리적 사고가 주로 작용하는 문법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위주로 쓰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토론문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표 III-6>에서처럼 '맞다'혹은 '틀리다'라는 판단의 어휘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법토론은학생의 판단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7> 토론문 분석 결과(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료제시	22	8.2	20.8
문제 정의 및 재정의	10	3.7	9.4
토론의 장 확대	2	.7	1.9
상대 의견 점검	10	3.7	9.4
타당한 논거제시	23	8.6	21.7
부정	15	5.6	14.2
	문제 정의 및 재정의 토론의 장 확대 상대 의견 점검 타당한 논거제시	자료제시 22 문제 정의 및 재정의 10 토론의 장 확대 2 상대 의견 점검 10 타당한 논거제시 23	자료제시 22 8.2 문제 정의 및 10 3.7 토론의 장 확대 2 .7 상대 의견 점검 10 3.7 타당한 논거제시 23 8.6

반중	15	5.6	14.2
부분개선	5	1.9	4.7
대체방안	4	1.5	3.8
합계	106	39.7	100.0
결측값	161	60.3	
합계	267	100.0	
	부분개선         대체방안         합계         결측값	부분개선     5       대체방안     4       합계     106       결측값     161	부분개선51.9대체방안41.5합계10639.7결측값16160.3

토론문에서는 '타당한 논거제시(21.7%), 자료제시(20.8%), 부정(14.2%), 반증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 주된 내용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대편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정의 및 재정의, 상대 의견 점검'도 여러 부분에 드러났는데, 이들 역시 토론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 2) 평가문

앞 절의 평가문 분석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I-8> 평가문 분석 결과(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유	상황맥락	2	1.1	1.1
	문법적 논리	18	9.8	9.8
<u>Ā</u>	언어적 직관	13	7.1	7.1

	보편적 이론	3	1.6	1.6
	증명과정	43	23.4	23.4
	조건	2	1.1	1.1
	~~~~~~~~~~~~~~~~~~~~~~~~~~~~~~~~~~~~~	8	4.3	4.3
유	특성이나 개념	7	3.8	3.8
	자료조사	6	3.3	3.3
	반론	11	6.0	6.0
ক্র	논제	14	7.6	7.6
	논의 확장	25	13.6	13.6
	논거	30	16.3	16.3
	표현	1	.5	.5
	해석	1	.5	.5
	합계	184	100.0	100.0

평가문은 '증명과정(23.4%)'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대상이 주로 문법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는 '논거(16.3%)'가 다음 순번을 차지했다.

<표 III-9> 평가문 분석 결과(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	정의	1	.5	1.3
ক্র	비교나 대조	5	2.7	6.4

	예시	33	17.9	42.3
	과정	4	2.2	5.1
Ĥ	인용	8	4.3	10.3
ত্র	가정	1	.5	1.3
	이유제시	26	14.1	33.3
	합계	78	42.4	100.0
	결측값	106	57.6	
	합계	184	100.0	

평가문은 '예시(42.3%), 이유제시(33.3%)'가 주된 설명방법으로 쓰였다. 문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이유제시'가 중요한 설명방법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0> 평가문 분석 결과(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절	44	23.9	37.9
٥. à	부적절	50	27.2	43.1
<b>유</b> 遠	보완필요	22	12.0	19.0
	합계	116	63.0	100.0
결측값		68	37.0	
	합계	184	100.0	

평가문에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 표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는 S23 학생의 평가문이다.15)

<sup>15)</sup> 밑줄 및 굵은 글씨 필자, 이름은 본고의 명명으로 고침

S1은 퍼거슨 감독인 근거를 한국 사람의 언어적 직관으로 들었는 데 토론문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직관에 따른 논거를 드는 것은 적 합하지 못하다.(-1) 또한 S3은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자기 나라로 보냈다'는 문장의 부사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꾼 채로 주장을 펼쳤 는데 비록 국어가 어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하나 토론 주제문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1) … 또한 S3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귀칭이 들어간 문장과 중의성의 측면에서 조금 다른 성격을 띤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 명사구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한 논거는 왜 자연스러운지 이유를 다시 들지 못했으므로 논거로서 <u>적합하지 못하다</u>.(-1) 또한 S5는 원문의 '보내다'라는 동사를 '돌려 보내다'라는 동사로 바꾸었는데 이는 엄 연히 다른 동사이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 부적절하 다.(-1) 또한 S5는 문장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꿀 경우 '퍼거슨 감독 이 박지성에게 "내 차를 타"라고 했다'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하였 는데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자기 차를 타" 라고 했다'로 바꾸 는 것 역시 상황(예)지성이가 술을 마시고 자기 차인 줄 알고 호나 우드의 차를 탄 경우)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논** 거가 될 수 없다.(-1) S7 역시 큰 문장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만이 목적어가 재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였는데 S8이 반박 하였다시피 일부 사동사의 경우 안은 문장 구조가 아니더라도 자기 의 주체가 중의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못하다**.(예: 그는 아이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1) S6의 경우 자기를 '지'로 바꾸었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지'는 '제'의 잘못된 표기, 또는 방언이 며 '지'로 바꿀 경우 박지성으로 확 쏠린다는 논거 역시 논리적이지 **않다**.(-1) S8의 경우 "자기 차를 타라"는 주어가 갖추어지지 않았으 므로 절이라고 볼 수 없다 하였는데 주어가 확실한 경우 생략이 가

# 능하므로 절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성이 부족하다.(-1) [후략]

부정적 표현을 많이 쓴 학생일수록 치밀한 분석과정이 나타난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세심하게 살펴볼수록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S23학생은 '부적절, 보완필요'의 용어를 17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평가자 23명의 쓴 부정적 표현에 23.6%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표현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그에 대한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문법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표 III-11> 평가문 분석 결과(4)

<u></u> 항목	적절성	논리성	*************************************	 판단성
 상황맥락	0	2	0	0
문법적 논리	6	8	1	3
언어적 직관	5	3	0	4
보편적 이론	0	0	1	1
	5	31	3	7
조건	0	2	0	0
적용 범위	3	2	3	0
 특성이나 개념	1	2	2	2
자료조사	1	2	4	0
반론	0	4	0	7
논제	13	0	1	1
논의확장	1	3	19	3
논거	3	16	7	4
표현	1	0	0	0
해석	0	1	0	0
합계	39	76	41	32

평가범주는 '내용의 적절성, 논리성, 창의성, 판단성'으로 제시하였다. '내용의 적절성'은 '논제', '논리성'은 '증명과정, 논거', '창의성'은 '논의확장'에 주로 나타났다.

<표 III-12> 평가문 분석 결과(5)

항목	적절성	논리성	창의성	판단성
창의성	1	4	34	4
논리성	5	36	0	5
판단성	0	1	0	15
관련성	5	0	1	1
합계	11	41	35	25

'내용의 적절성'은 주로 '논리성, 관련성'에 연관해서 나타났다. '논리성' 항목에 간혹 '창의성' 항목으로, '판단성' 항목에 '창의성, 논리성' 항목으로 잘 못 평가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평가 항목에 사용하는 어휘나 범주를 명확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표 III-13> 평가문 분석 결과(6)

항목	적절성	논리성	창의성	판단성
정의나 지정	0	1	0	0
비교나 대조	2	0	1	2
예시	5	16	11	2
과정	2	0	2	1
<del>인용</del>	0	7	0	1
 가정	0	1	0	0
이유제시	4	18	3	3
합계	13	43	17	9

학생들은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이유제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의 설명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항목	적절성	논리성	창의성	판단성
동의	7	9	1	5
부정	6	14	3	1
보완	2	14	3	2
적절	7	9	2	5
부적절	13	15	0	0
합계	35	61	9	13

<표 III-14> 평가문 분석 결과(7)

'논리성'은 정오를 가려내는 어휘가 많이 쓰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부정 적 어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3) 면담

토론과 평가가 모두 끝난 후 실시한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법용어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을 필요로 한다. 아래는 '바람직한 문법교수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토론자 S2 학생이 답변한 것이다.

S2: 제 생각에는 문법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강의식 수업이 전제되고, 학교에서도 국어학개론 이런 강의식 수

업을 처음에 하고 나서 문법교육론, 국어학특강 시간에 어느 정도 국어학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토론수업이나 발표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법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저학년 과정에서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현재 문법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토론자 S4 학생이 답변한 것이다.

S4: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학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국어는 거의 활용하지도 않았고, 문학하고 그런 것만 중시했지, 문법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대학 와서 처음 문법할 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받은 문법교육이 좋았습니다. 외우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에 맞는 것만 좋아하는 만큼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것은 왜 문제일까?' 문제제기하는 것이 부족한데, 수업 자체가 계속 기존에 있던 기본을 갖춰 준 다음에 '이게 왜 문제일까?',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예문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보고 생각하는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치면 문법 지식을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것과 같이, 자기가 (저희가 이번 수업시간에 하기도한) CPS모형이라고,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

니다. 이렇게 문법교육도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수업하는 것을 원했고,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문법주제에서 지적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사임용시험과 본 연구의 학습방법에 관해 S4와 S8이 스스로 답변한 내용이다.

- S4 : 임용시험 문제들이 문법도 그렇고 다 교수-학습식으로 나오 기 때문에, 교수-학습 내용에서도 학생들의 토론을 두고 맞는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문법적 사실만 가지고 외웠다면 곤란할 수 있다.
- S8: 임용시험 쪽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토론하고 멀지 않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문법 안에서 해야 하는 게임용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멀리 본다면 사범대가 임용시험의 테두리 안에서 수업이라면 좀 지양해야 될 수업이지만국어교육 안에서 하면 도움이 되는 멀리 보면 훨씬 나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임용시험 자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때는 하기가 힘들잖아요책을 보며 주입식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수업시간에 그렇게해보면 그때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에서 생각하는 게 길러지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안 해본 친구하고 해본 친구하고 학습법이 달라지겠죠. 좀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위의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방식이 교사임용시험의 학습법과 관련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런 수업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업방식에 대해 토론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은 S7학생의 '이번 수업을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이다.

S7: 아무래도 이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시간도 있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책도 보고 논문도 봤는데 상대방 의견이 어디서 어떤 논문을 읽고 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의견 펼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준비 가능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토론은 일정한 기한이 필요하지만, 오프라인상 토론에 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본수업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3. 문법 토론의 교육적 효과

먼저 토론과 관련된 초·중등 학교의 국어 교육 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5> 국어 교육 과정의 변천

	초 등 학 교	비고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5차부터 등장한 토
10071 -	<5학년>	론은 이후 모두 초
1987년	-쓰기-	등학교에서 고학년
(5차)	나) 학교 행사, 학급 활동 등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에만 배치된다.
	<u>토론</u> 을 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쓴다.	

	<6학년> -쓰기- 나) 학교 행사, 학급 활동 등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u>토론</u> 을 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쓴다.	'말하기'나 '듣기'가 아니라, '쓰기'에 토 론이 나타난다.
1992년 (6차)	나. 학년별 내용 <6학년> -말하기- (8) 토의나 <u>토론</u> 에서 주장의 요지와 근거를 분명히 드 러내어 말한다.	
1997년 (7차)	<5학년> -듣기- (3-심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4-심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토론한다. <6학년> -말하기- (6-기본) 회의, 토의, 토론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 상황에서 규정된 말하기 규칙을 지킨다. 진행자가 되어 회의나 토의, 토론을 원만히 진행한다.	
	중 학 교	비고
1971년 (2차 중간)	다. 지도 내용 (1) 말하기 (나) 공식 인사, 회의, 좌담, <b>토론</b> , 연설, 설명 등 형식	
1973년 (3차)	나. 내용 [지도 사항 및 형식] <제1,2,3학년> (1) 말하기 (나) 주요 형식 ⑩ 토의· <u>토론</u>	

-		
	(2) 듣기 (나) 주요 형식 <sup>①</sup> 토의· <u>토론</u>	
1987년 (5차)	2. 내용 <2학년> -듣기- <듣기의 원리와 실제> (4) 토의나 <u>토론</u> 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고, 내용을 종합하여 말한다. <3학년> -듣기- <듣기의 원리와 실제> (4)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u>토론</u>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평가한다.	'말하기'에는 토론 이 없고, '듣기'에만 나타난다.
1997년 (7차)	<7학년>-듣기- (4·기본) 토의나 <u>토론</u> 을 듣고, 참여자들의 말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한다문학- (6·기본)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u>토론</u> 한다. <8학년>-말하기- (5·기본)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의나 <u>토론</u> 이원만히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5-심화)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토의나 <u>토론</u> 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예를 찾아보고, 그 문제점과폐해를 말한다쓰기- (2) <u>토론</u> 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글을 쓴다. (2·기본) 논쟁이 될 만한 사회 문제에 대해 <u>토론</u> 하고,	'문학' 영역에 토론 이 많이 등장한다. '문학'은 가치의 문 제가 다루어지기 때 문에 토론이 적합한 수업방법이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 (2-심화) 논쟁이 될 만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 <u>토론</u>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문학- (5-심화)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바뀐다면, 작가의 세계관이 어떻게 될지 <u>토론</u> 한다.	

	<9학년> -말하기- (2-기본)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쟁점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u>토론</u> 한다. (2-심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u>토론</u> 한다국어지식- (4-심화)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u>토론</u> 한다문학- (5-심화) 작품을 읽고, 사회·문화적 상황이 바뀐다면 작가는 어떤 글을 쓰게 될지 <u>토론</u> 한다.	
	고 등 학 교	비고
1955년 (1차)	그. 고등학교 학생의 언어 생활 말하기 ⑤ 토의(討議), <b>토론(討論)</b> 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모임에 나가면, 먼저 그 장소의 분위기를 짐작하고,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안 후에,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사회자(司會者)가 되었을 때, 사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 ㄴ. 토의의 형식으로는 꾸룹 디스컷숀(Group discussion), 디 베이트(Debate), 패넬 디스컷숀(Panel discussion), 심포쥼(Symposium)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그 목적은 진리를 탐구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적인 의견을 서로 존중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ㄷ. 토의는 다른 교과의 학습에서도 많이 행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기초적인 기술과 태도에 대한 훈련을 국어과에서 철저히 하여야할 것이다.	'토의'와 '토론'의 개념이 명확히 구별 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

	I	
	말하기의 주요한 경험	
	4. <b>토론(討論)</b> 을 한다.	
	五. 단원 예 제2학년 회의(會議), <u><b>토론(討論)</b></u>	
1963년 (2차)	Ⅱ. 국어 I 2. 지도 내용 말하기 □. 토의(討議), <u>토론(討論)</u> (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대한 연구를 한다. (2) 토의의 형식으로서는, 그루우프 디스커션, 디베이트, 패널 디스커션, 심포쥼 … 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의는 다른 교과의 학습에서도 …할 것이다. [말하기의 주요한 경험] ④ 토론을 한다.	
	듣기 (4) 동무들과의 회화, <u>토론</u> 이나 취미를 같이 하는 그루 우프 및 클럽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듣는 생활이 더욱 깊어져 간다.	
1974년 (2차중간)	Ⅱ. 국어 I 2. 내용 가. 지도 사항과 주요 형식 <말하기, 듣기> (2) 주요 형식 (바) 토의, <b>토론</b>	
1992년 (6차)	2. 국어       2-1. 국어       나. 내용	'화법'이 독립교과 로 채택되면서 '토 론'이 강화됨

-듣기-

<듣기의 원리와 실제>

(7) 토의나 <u>토론</u>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고, 그 내용을 종합한다.

#### 2-2. 화법

- (3) 화법의 실제
- (다) 토의와 토론
- ① 토의와 토론의 목적, 형식과 절차 및 방법을 안다.
- ② 토의와 <u>토론</u>의 사회자 및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안다.
- ③ 여러 가지 형식의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④ 여러 가지 형식의 <u>토론</u>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6. 문학

#### 4. 방법

아. '문학' 과목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창의성을 발휘하되, 토의나 **토론**식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운영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 <10학년>

-문학-

(5-심화)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작품을 읽는 경우와 파악하지 못하고 작품을 읽는 경우 의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 1997년 (7차)

#### 4. 방법

나. 교수·학습 방법

(2) 강의, 토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3. 화법

'화법'에서 '토론'이 중요한 자리매김 3. 내용

가. 내용 체계

(2) 화법의 실제

#### (라) 토론

- ① 토론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을 안다.
- ② <u>**토론**</u>의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론 한다.
- ③ 상대의 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는다.
- ④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며 상대의 말을 차분히 듣는다.

초·중등학교급에서 '토론'은 주로 말하기와 관련되어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특히 사회과나 국어과의 문학 영역에서도 주된 학습활동의 형태를 띠며 나타난다(이경현, 2009기). 아카데미식 문법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논리를 철저히 하는 학문의 자세를 체득할 수 있다.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일 회에 불과하고, 문법은 정오가 분명하므로 논리상의 허점이 생기면 상대편 토론자에게 바로 반박 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의 전략을 통해 논리를 보완하고 강화하였다. 그리고 본 수업은 교차토론의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 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어진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상대편이나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완벽한 논증능력을 육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편의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의 발표자와 토론자와 같은 경험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문법은 대부분 주어진 용어의 개념과 규칙을 암기하는 분야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학문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문법이 확립된 이후 문법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어의 영역이 됐

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력 중 암기력만 필요한 분야로 오인 받게 되었다. Richard Cullen(2007)은 Henney Widdowson(1990)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미가 어휘나 문맥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문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Widdwson(1990:86, Richard Cullen 재인용)은 '문법은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제약이다. 실제의 문맥이나 순전히 어휘적 범주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문법의 사용역을 통해 의도나 의미를 분명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문법은 제한된 틀 안에서의 논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론이라는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학습자는 판단력을 증진시키고 문법은 진일보할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궁정적 경쟁심을 유발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다음 은 S6 학생의 면담 내용이다.

56 :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심이 붙잖아요. 사람이 토론이나 붙게 되면 좀 이기고 싶어 하는 논리로, 막말로써 억지 논리로써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논리로써 대결해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재미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수궁을 하기는 싫더라고요. 제 주장을 좀 더 펴고 싶고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충분히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발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글을 통해 다 올린 거잖아요. 저도 반발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봐야하고, 봐야 되니까. 책에 나온 것 참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오해를 꺾을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면담자 :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렀나요?

S6: 책 펴놓고 자료 입력하는데 2~3시간 걸렸고요, 그 전에 책이랑 논문 같은 거 뒤적이는 시간은 최소한 그 이상이 걸렸어요.

위와 같이 토론은 논쟁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수자의 강압이나 요구 없이도, 스스로 학문적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정보와 지식 구성 능력을 증진시킨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논문이나 전공서 등을 자신의 논리를 위해 이용하여 논리를 구성하여 제시 하였다. 다음은 S7 학생의 토론문의 일부이다.16)

S3이 자신의 의견을 쓰면서 우리는 모국어 화자의 직감으로 '자기'는 '퍼거슨 감독'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실제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 도중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고 귀찮아 할 줄 알았는데, 평소에 잠만 자고 까불던 학생들도 소리 지르며 자기 의견이 맞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학생들에게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u>자기</u> 나라로 보냈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u>자기</u> 차를 타라고 했다." 문장에서 자기는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반에 들어가서 물었으니 70명 정도 됩니다. 아직 문법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문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접해보지 못했지만 중3 정도 되면 모국어 화자로서 직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지칭 대상이 퍼거

<sup>16)</sup> 밑줄 및 굵은 글씨 필자, 이름은 본고의 명명으로 고침

순인 것 같니? 아님 박지성인 것 같니?' 손을 안 들었던 학생을 빼고 1번 문장은 퍼거슨이 33명, 박지성이 25명 정도로 퍼거슨이 약간 우세하였습니다. 하지만 2번 문장은 퍼거슨이 43명, 박지성이 16명으로 1번 문장보다 더 격차가 심하였습니다. … 여기서 간과 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가 학생들은 그동안 '무조건 명백한 답이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공부를 하여 '자기'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후에 '자기가 퍼거슨과 박지성 모두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그제서야 몇몇 학생들이 '어 그런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한번 읽어 봤을 때 국어전공자거나 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박지성'보단 '퍼거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S7 학생은 논리만으로 자신의 논의를 보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문의 방식을 활용해 논의를 보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인식 방법을 해 석하여, 새롭게 자신의 인식을 구성함을 볼 수 있다.

아카데미식 문법토론을 통해, 이상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 교수 원리를 밝히도록 한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토론 주제는 모국어 화자의 경우보다 더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문법 요소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한국 문화의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토론 주제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고급, 중급, 초급의 구분이 필요하며 비동시성 토론의 장점을 살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설계할 수도 있다.

# Ⅳ.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사 양성 사업 확대17)

# 1.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최근 한국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종·문화·언어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122만 9460여 명 중 30.9%에 해당하는 27만 9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서울(28.7%)보다 더욱 많으며 전국 최고이다. 결혼이민자 역시 2010년 7월 31일 기준으로 137,44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 36,197명으로 서울 31,451명보다 더 많다. 2001년에 결혼이민자의 수가 25,18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10).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0년 4월 현대 31,788 명이다(교과부, 2010). 하지만 아직 취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64,040명에 이른다(행안부, 2009). 즉 학교에 취학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취학하지 않은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수치는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17)</sup> 연구자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인교대에서 실행한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 과정' 사업에 참여하여 문법교육을 담당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지원책으로 이 사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의 개요를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2010)'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활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출신국이라는 두 나라 언어와 문화의 교량으로써 이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에 있어 두드러지는 현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 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심은 다문화가정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지원 대상으로 보게 하는 부 작용들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런 시각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지 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단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지원과 한국 사회에 통합 시키고자 하는 교육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해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역할 모델 을 제시함으로써 더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요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수의 다문화 가정 여성과 남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과 직업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그들이 가진 이중언어 능력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중언어 교수 요원을 양성해내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학업 능력 신장,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체성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신장과 더불어 이중언어 능력 함양은사회 공헌 및 가치로운 교육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이중언어 교수 요원을 투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모형을 제시하여 다문화사회 통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 2. 사업의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09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은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가 가능한 교육 인력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으로 양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문화·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제공, 국제화 시대에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 배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국에 대한 이해 및 리더십 향상의 세 가지라고할 수 있다.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하에 경기도 교육청의 위탁을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받아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4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중언어 능력은 단순히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은 언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조적을 하는 데에 있어 단일언어 구사 어린이보다 월등하다(Bailystock, 1987). 또 이중언어인은 단일 언어인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더 빠르고 유창하다고 한다(Rynolds,1991). 즉, 이중언어 능력은 그들이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두 배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영순, 2002).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환경은 두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에서는 한국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의 문화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잘 못된 의식이 팽배하였으며, 이것이 한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은 다문화교육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 는 일선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 적응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중 언어 교수요원들의 역할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에 대한 도움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정체 감 형성을 도와주고 아이들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언어 교수요원들에게는 단순한 직업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 방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며, 삶 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 3. 사업의 성과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은 등록비를 제외한 교육비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는 과정이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배치되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으 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은 다문화가정의 강점인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이들의 강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반면에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은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여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자녀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 교 수요원이 학교에 있음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 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이 고용창 출과 연계되어 다문화가정의 자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 V.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연구 결과의 요약

### 가. 이러닝 진단 처방 시스템 개발

외국인이 자기 스스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진단하고, 이를 분석한 후 오답 클리닉을 통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 나. 블랜디드 러닝 토론을 활용한 문법 교수법 개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법은 '외워야 하는 것' '어려운 것' 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학습자들이 매우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문법 교수법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문법 토론식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문법 토론 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토론을 실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녹화한 자료도 전사하여 그 자료를 내용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시 보완하여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토론 학습에 활용하고자 한다.

### 다.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사 양성 사업 확대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비 장학생의 형식으로 선발한 40명의 이주민 여성들은 전원 대학 졸업의 학력을 소유한 고학력자이다. 본 연구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39명이 경기도소재 초중등 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채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는 2기한국어교수 요원들의 연수가 진행 중이다.

이중언어 교사 양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여성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가꾸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과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2. 정책 제언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정책의 실현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닝 진단·처방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이 자기 스스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진단하고 이를 분석한 후 오답 클리닉을 통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학습 능력을 갖춰, 교과 학습에 잘 적응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온라인 토론 학습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의 방과 후 학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토론 학습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토론 학습의 콘텐츠를 잘 구성한다면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가 인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도와 실천도 순위는 문법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법 토론 학습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에 적합한 교수법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고학력 이주민 여성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연수 과정을 거치고, 연수 후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 교사로 채용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과 경인교대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의 실천 의지와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에 자부심과 희망을 주고 내국인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효과도기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강병재 (2009), 생각의 힘을 키우는 토론수업, 교보문고.
-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 출판부.
- •국립국어원 (2005), 한국어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 (2010),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 사업 평가 백서,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 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0),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 국어교육연 구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 개정안 해설서.
- · 구정화 (2009), 학교 토론수업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김홍범 (2008), 문법교육을 위한 탐구학습 자료개발 연구, 겨레어문학 44 집, 겨레어문학회.
- ·김홍범 (2009),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법교육, 문법교육 10호, 한국문법교 육학회.
- ·김홍범·이경현 (2010¬), 웹블렌디드 토론에 기반한 문법교수법의 원리와 방법, 문법교육 12호,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이경현 (2010ㄴ),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아카데미식 문법토론, 문법교육 13호, 한국문법교육학회.
- ·류영달 (2006),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u-Learning 전망과 과제, 유비쿼터 스사회연구시리즈 제24호 3쪽,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2009),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한 진단·처

방 학습관리 시스템, 언어와 문화 제5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201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문법교육을 위한 토론학습, 국어교육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 · 박은정 외 3인 (2008), 한국어 온라인교육(이러닝)에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UOI (User Oriented Indexing) 방법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 학술 대회.
- · 박준석 외 (2003), 유비쿼터스와 정보단말 기술의 융합, 한국통신학회지(정보통신) 제20권 6호, 33~43쪽, 한국통신학회.
- · 백춘현(2004), "도덕과 토론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열린교육연구」, 제12집, 1호.
-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이러닝 표준화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연구.
- ·성기철 (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 정보학 입문」, 태학사.
- ·서정희 외 (2005), 미래교육을 위한 u-러닝 교수 ·학습 모델 개발,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 · 손진곤 외 (2005), 이러닝 표준화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연구, 산업자 원부 연구보고 KIEC-130.
- · 송복섭 외 (2007), 교육의 혁신 이러닝 개념 및 동향, 주간기술동향 1305 호 1~13쪽, 정보통신연구원.
- ·유현경·강현화(2001), 한국어 학습 사전에 있어서의 유의어에 관한 연구,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경현(2009기), 주제중심 토론극화수업의 모형 정립, 청람어문교육 제39 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경현(2009ㄴ), CPS에 기반한 문법교육, 문법교육 제11호, 한국문법교육 학회.

- ·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 ·이승욱 외 (2005), 차세대 e-러닝 서비스: e-러닝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자 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4호 155~166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임정훈 외 (2003), 교실수업-사이버학습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3-22.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 장병기(2000), 사고와 언어, 동서문화연구 제8집,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문성 외 (2003), 참여토론식 교육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 중앙공무원교육원.
- ·조경희 외 (2009), 상업정보 교과에서의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토론학습 모형 개발 연구, 상업교육연구.
- ·조항록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 한정선·박정미 (2007), 웹 기반 토론학습에서 교수자와 토론촉진전략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도, 사회적 참여도,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1호, pp. 5-3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교수학습 혁신 세미나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학습, 연구자료 ORM 2007-7.
- · Gagné, R.,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 (4th ed.), Holthart & Winston. 1985.
- · Ogata, H., and Yana, Y. (2003), Supporting Knowledge Awareness for a Ubiquitous CSCL, eLearn 2003, pp. 2362-2369, Phonix, Arizona, USA.
- · Weinstein, C. E. & Mayer, R, E., The teaching of learning strategies. In M. Wittrock (Ed.),